

#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무등산에 숨은 누정문화 찾기		
활동목표	무등산 권에 숨어 있는 누정문화를 찾아본다. 무등산 권 누정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본다. 누정문화에 깃든 옛 조상들의 정신을 느낀다.		
해설주제	가사문학권과 누정문화		
해설재료	소쇄원	소요시간	10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인사	- 인사 - 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0.5	
주제별해설	소쇄원 소개	- 소쇄원 소개 - 소쇄원 오리이야기 - 원림과 정원의 차이	3	
	오곡문 애양단	- 오곡문의 기능과 원림적 특징 - 애양단의 의미	3	
	제월당 광풍각	- 제월당 소개 및 기능 - 광풍각의 기능 - 광풍각 구조의 특징 - 광풍각의 숨은 굴뚝 찾기	3	
정리	마무리	- 소감나누기 - 마무리 인사	0.5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무등산에 숨은 누정문화 찾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	안녕하십니까 무등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등산에 숨은 누정문화를 찾기라는 주제로 소쇄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자연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탐방 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탐방하도록 하고 탐방 중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구급키트가 있으니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핫들핫들~)
소쇄원 소개	<p>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은 담양에 위치한 국내 최고 원림이라고 불리는 소쇄원입니다. 소쇄원의 인물로는 창건자이자 주인인 양산보를 들 수 있는데 양산보는 소쇄원과 가까운 창평에서 태어나 자랐고 15살 때 서울로 올라가 조광조 아래에서 학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묘사화라는 사건을 계기로 양산보는 현실정치에 대한 꿈을 접고 이곳으로 내려와 소쇄원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소쇄원 오리</p> <p>소쇄원 입구에 서있으면 시작부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리입니다. 왜 소쇄원 앞에는 오리가 있을까요?(참여유도, 대답유도) 양산보가 어릴 적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발견하고 따라 와보니 지금 소쇄원의 자리를 발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너럭바위로 흐르는 계곡과 작은 폭포, 주변 풍광의 수려함에</p>

눈을 떼지 못하였고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살겠다는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소쇄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쇄원 입구의 오리는 소쇄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일본)



원림(소쇄원)

자 입구를 조금 지나와 이곳에서 보면 왜 소쇄원이 국내 최고의 원림이라 불리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원림과 정원의 차이점을 아셔야 하는데 제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원림일까요? (반응유도) 대충 눈치 채셨죠??? 내 맞습니다. 오른쪽이 원림입니다. 원림과 정원의 차이점은 정원은 나의 집(공간) 안에 인공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인위적으로 작은 자연을 만드는 것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정원의 형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림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둔 뒤 빈 공간에 집을 채우는, 자연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방식의 건축을 원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소쇄원은 자연 공간 안에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호응유도)

오곡문과  
애양단



오곡문

자 그럼 담장을 쪽~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을 따라 쪽~ 가

다보면 오곡문이라는 출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담 아래 돌기둥을 만들고 계곡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오곡문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원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같이 계곡에 물이 불어나더라도 오곡문을 통하여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오곡문을 통해 흘러간 물이 바위에 다섯번 굽어져 흐른다고 하여 오곡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애양단 담장



애양단

그리고 오곡문 바로 옆에 담장을 보시면 애양단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애양단은 겨울에도 별이 잘 들어 따뜻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소쇄원관련 시 중 '애양단의 겨울 낮'이라는 시에서 한겨울에 계곡은 아직 얼었는데 이곳의 눈은 모두 녹았다.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별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겨울에도 눈이 가장 빨리 녹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오곡문 앞의 나무다리를 건너 광풍각과 제월당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월당과  
광풍각



제월당

이곳 제월당은 비개인 하늘에 상쾌한 달이라는 뜻으로 주인의 공간입니다. 제월당은 주로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 곳으로 이용하였고 주인의 공간답게 제월당의 마루에서 보면 소쇄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철, 송시열, 기대승 등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이곳 제월당에서 수양과 학문을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월당 앞의 문을 통해 나가보면 광풍각이라는 손님의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풍각



광풍각 굴뚝

자 이 곳이 비간 뒤 맑은 해가 뜨고 청량한 바람이 분다는 광풍각입니다. 광풍각 마루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자면(실제로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sound-scape 법)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폭포, 바위에 부딪치는 물소리, 시원한 바람과 같이 자연의 정취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광풍각은 사방이 마루로 뚫려 있고 가운데가 온돌방으로 만들어져 있어 별이 좋은 날이면 모든 문을 개방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고 겨울과 같이 추운 날이면 문을 닫고 온돌에 불을 지피 따뜻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광풍각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궁금증유발) 광풍각 뒷 편에 온돌을 지피기 위한 아궁이가 있는데 광풍각에는 굴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굴뚝이 어디로 갔을까요?(호응유도) 이것은 광풍각 마루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굴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굴뚝은 천장위에 만들고 연기가 위로 빠져 나가게 하는데 어찌 광풍각의 굴뚝은 마루 아래로 나져 있을까요? 이 또한 자연을 활용하여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선비들의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광풍각 앞에는 계곡 때문에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가 있어 굴뚝에서 나온 연기를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연기가 옆으로 잔잔하게 퍼져 나가 마치 운해를 보는 듯 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선비들의 지혜와 과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쇄원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연 속으로

	<p>사람들이 들어가 자연과 하나임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b>마무리</b></p>	<p>현대사회에서는 개발과 발전, 개인주의로 원림의 개념 보다는 내가 자연을 만드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의식을 생각해 보면 옛 선비들의 원림을 짓는 정신과도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오늘 저의 해설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정원이 아닌 옛 선비들의 정신이 담긴 자연 원림안의 삶, 자연에 속한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해설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